



NEPAL HIMALAYAS



위 끝없이 이어진 모레인 지대를 하염없이 걸었다. 왼쪽 투쿠체 서봉(6848m)을 배경으로. 아침에는 파란 하늘과 설산을 볼 수 있지만 오후에는 어김없이 안개가 끼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영원한 바람의 땅으로

바람이 강하고 계곡이 넘쳐흐르기도 하는 다울라기리 히말라야는 네팔의 많은 트레킹 코스 중 상당히 걷기 어렵고 위험하며 오지로 알려져 있다. 오랜 염원이던 다울라기리 히말라야에 설레는 마음으로 10월 1일부터 보름간 다녀왔다. '석채언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다울라기리 서킷 트레킹'이라는 헤초여행 기획 프로그램으로 산을 사랑하는 9명의 대원이 동행했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후 사전답사를 갔던 세르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르방에서 무디까지 가는 도로가 폭우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로 했다. 찾길 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트레킹 코스였다. 하루를 더 걸어야 했지만 대원들 모두 걷는 것을 좋아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글 사진 · 석채언(헤초여행 대표이사)

해발 5360m의 프렌치 패스까지 6일간의 여정

다르방, 캄라, 바가라, 바이저, 도반, 살라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베이스캠프까지 해발 1100m부터 3660m, 고도 약 2500m를 온몸으로 올리며 6일 동안 걸었다. 트레킹 코스는 계곡을 따라 오르도록 돼 있었다. 수량이 풍부한 많은 폭포들이 줄지어 있어 장관을 이뤘다. 그중 1500m 정도 되는 어떤 폭포는 구름에 가려진 산정부에서 층층이 깊게 파인 계곡 밑으로 물줄기가 떨어져 마치 하늘의 구름에서 폭포가 내리는 것 같은 신비한 자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우거진 원시림과 화사한 야생화 군락은 금방이라도 요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비경을 선물했다.

물론 보기 좋은 경치만 계속 펼쳐졌던 것은 아니었다. 폭우로 인해 계곡에는 탁한 급류가 무섭게 흘렀고 곳곳에 길이 무너진 절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지나야 했다. 또 매일같이 오후부터 새벽까지 내리는 비 때문에 정글 지역을 지날 때는 거머리의 습격을 피해야 하는 괴로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전기조차 없는 오랜 산간마을과 원시림 속 한적한 히말라야 산길을 마음 속 깊이 아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에서야말로 원초적인 트레킹을 즐길 수 있기 때



1



2

- 1 트레킹 초입의 마을인 캄라(1570m)에서의 휴식.
- 2 울창한 숲과 시원한 폭포가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
- 3 포카라에서 바라본 다올라기리와 안나푸르나.
- 4 세계 7위봉 다올라기리의 베이스캠프(4650m)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 5 하얀 설산을 병풍 삼아 야영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 캠프.



5



4



3

문이다. 다올라기리 서킷 지역은 네팔 숙소인 롯지(Lodge)가 없거나, 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없는 곳이라 모든 숙박은 텐트에서 해결했다. 이 또한 조금 고되더라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나라별 베이스캠프를 지나

계속해서 가랑비를 맞으며 짙은 안개 속을 걸어야 했던 트레킹 6일째, 몽환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탈리아인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여기부터는 고유의 지명이 없는지 과거 등반대의 국가명으로 불렸다. 이탈리아인 베이스캠프 오른쪽으로는 다올라기리 1봉이 수직으로 솟아 있었고, 왼쪽으로는 다올라기리 3봉, 4봉, 5봉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으며, 연봉 아래로는 멋진 폭포 두 줄기가 계곡 아래로 기다랗게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탈리아 베이스캠프에는 오래된 롯지가 있긴 했지만 역시 숙박은 되지 않아 우리는 하얀 설산을 병풍 삼은 널찍한 캠핑사이트에 자리를 잡고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냈다.

모처럼 날씨가 맑던 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이탈리아인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1봉 하단으로 쏟아진 눈사태 지역을 우회하며 빙

하로 내려섰다. 다올라기리 고봉들 사이에 깊게 패여져 있는 거대한 빙하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우리는 걷는 내내 파이팅을 외쳤다.

눈사태 지대와 낙석 지역과 같은 위험 구간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 서두르던 중 헬기 한 대가 요란스럽게 협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잠시 후 스위스 캠프에서 하산 중인 세르파들이 말하길, 방금 전 그 헬기는 그날 우리의 목적지였던 일본 캠프에서 고소증으로 조난당한 트레커들을 구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고 한다. 스위스 캠프를 지나서는 체코 국적의 트레커 3명이 역시 고소증으로 구조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발 4000m도 안 된 지역에서 왜 고소증이 심해졌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우리 앞길을 걱정하는 게 더 우선이었다.

일행은 차갑고 사나운 급류를 건너야 했고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인 빙하 특유의 끝없는 돌길을 지나야 했다. 협곡 양쪽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를 우려하면서 말이다. 협소하고 울퉁불퉁한 돌무더기 위에 있는 일본 베이스캠프(3890m)는 빙하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북한산 인수봉 야영장 정도면 호텔 급으로 생각될 정도로 일본 베이스캠프는 비좁고 불편했지만, 그나마 독수리 등지 같은 작은 공간이 있어 텐트 10개, 다이닝 텐트 2개, 화장실 텐트 1개를 겨우 설치할 수 있었다.



1

이튿날에도 지루하고 힘든 빙하 구간을 계속 걸어야 했다. 다울라기리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무렵에는 크게 벌어진 크레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갈라진 크레바스 사이로 한나절 동안 힘들게 겨우 길을 찾아 걸어야 했지만, 그나마 멀리 다울라기리 2봉을 오르는 등반대를 볼 수 있어 행운이었다. 다울라기리 베이스캠프에는 약 5일 전에 등반대들이 철수한 덕분에 텐트 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곳 역시 캠프 장소가 협소해 등반대나 다른 트레킹 팀과 일정이 겹치면 처지가 매우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아! 히든밸리

늦은 밤부터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아침까지 약 20cm 가량 쌓였다.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전진하는 것이 후퇴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다. 다행히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크레바스 지역을 지나 프렌치 패스를 향해 오르는 설사면이라 길을 잃을 상황도 아니었다.

다울라기리 서킷에서 가장 높은 5360m의 프렌치 패스는 오르기 매우 힘든 곳이었다. 빙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르막 설사면을 바람에 견뎌가며 5시간가량 쉬 없이 올라 마침내 하늘과 맞닿은 프렌치 패스에 도달했다. 다울라기리 1봉 끝자락인 프렌치 패스는 힘들고 위험한 다울라기리 대빙하를 완전히 벗어나는 지점에 있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려는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 주변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프렌치 패스에 올랐다는 감격을 누릴 새도 없이 서둘러 히든밸리로 하산했다.

아! 히든밸리...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 사이의 협곡쯤이겠거니 했던 내 생각은 완전히 틀러버렸다. 히든밸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졌다. 바람의 땅으로 불리는 무스탕 왕국에 속하는 히든밸리에 들어서자 바람이 더욱 강하게 휘몰아쳤다. 무스

탕 왕국의 화려한 신화는 사라졌지만 영원한 바람의 땅이었다.

하산 길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날 프렌치 패스를 오르면서 포터 10명이 설맹(雪盲)에 걸렸는데, 그중 3명의 상태가 심각해 본래 일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 짐만 챙기고 나머지는 히든밸리에 남긴 채 모레 도착 예정인 말파까지 강행군을 하기로 했다. 히든밸리에서 말파까지 2500m의 표고차를 극복하고 5000m 고도에서 능선을 따라 바람을 견뎌가며 눈길과 산길을 약 12시간 동안 산행한 끝에 마침내 오래된 도시 말파에 도착했다.

말파는 사지에서 빠져 나온 우리에게 행복한 오아시스였다. 이후 설맹에 걸린 포터는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울라기리 서킷 트레킹을 멋지게 마친 우리는 산행 후 마시는 달콤한 맥주에, 아니 다울라기리에서의 가슴 벅찬 무용담에 행복하게 취했다.

그 뒤 우리가 히든밸리에 두고 온 장비들은 폭설 때문에 15일이 지난 후에야 가져올 수 있었다.



3

1 마지막 고개인 담푸스 패스(5244m)와 담푸스 피크(6035m).
2 마지막 마을 마파(2670m)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대원들.
3 이탈리아인 캠프를 떠나 스위스 캠프로 이동하는 대원들.

INFORMATION

다울라기리 서킷 트레킹 지도

- 차량이동
- 트레킹
- 대체코스



필자 석채연

- 1999년 헤초여행 대표이사 취임
- 1992년 헤초여행 창사 멤버, 탐험/문화/오지여행 상품개발
- 1988년 네팔 이주, 네팔/티벳/인도 여행상품 개발
- 1986~1988년 서울시산악연맹 산악구조대원 활동
- 1984~1986년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강가푸르나 등반 및 해외 유수 지역 등반

다울라기리 서킷 트레킹 실제 일정

- 1일차 인천-카트만두
- 2일차 카트만두-포카라-베니-다르방
- 3일차 다르방-카레-캄라
- 4일차 캄라-바가라
- 5일차 바가라-바이저-도반
- 6일차 도반-살라가리
- 7일차 살라가리-이탈리아인 캠프
- 8일차 이탈리아인 캠프-재페니즈 캠프
- 9일차 재페니즈 캠프-다울라기리 BC
- 10일차 다울라기리BC-프렌치패스-히든밸리
- 11일차 히든밸리-담푸스 패스-마파
- 12일차 마파-포카라
- 13일차 포카라
- 14일차 포카라
- 15일차 포카라-카트만두
- 16일차 인천

다울라기리 서킷 홈페이지 안내 일정

hyecho.com/goods/goodsdetail.asp?sch_goodcd=THM20164